

**금지일인** 사람들은 목숨을 위하여 의원을 섬기고, 남을 이기고자하여 권력이 있는 자에 의지한다. 법은 지혜있는 곳에 있으며, 복이 행하여지면 대대로 세상이 밝게 된다.  
(법구경·다문품 64절)

# 東大新聞

본사: 서울 중구 필동3가 (2260-3491, 2)  
FAX: (02) 279-1270  
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22770-2057)

## “이대로 보낼 수는 없다”

고 노수석군 장례식 진상규명 등 요구안 관철때 까지 무기한 연가



◇고 노수석군의 부검결과에 대한 논란이 많은 가운데 유가족의 동의하에 장례일이 무기한 연기이다. 사진은 지난 4일 장례식이 예정됐던 연세대 교정.

지난달 29일 대선자금 공개와 교육 재정확보를 위한 시위에서 경찰의 과잉진압 도중 숨진 노수석군(연세대 법과2)의 장례식이 무기한 연기됐다. 당초 장례식은 4일로 예정됐으나 한국대학교총학생회연합(의정=정명기·전남대학교총학생회장)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최고 책임자의 공식사과와 진상규명 △관련 책임자 처벌 △학교(연세대)측의 공개사과 등의 촉구를 골자로 한 입장장과 함께 “유가족의 동의하에 이상의 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장례일정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유가족은 성명서를 통해 “현장에서 있던 동료들의 여러 증언에 나타난 정황을 볼때 수석이 과잉진압으로 인해 희생되었음이 틀림없다”며 더이상 젊은이들이 자신의 주장을 펼치지 희생되지 않기를, 하루 빨리

경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가 도래하기를 비롯한 심정으로 기원하고”고 밝혔다.

법과대생을 중심으로 한 3백여명의 연세대대학교 학생들은 영결식을 마친 장례식 행렬이 학교를 나서는 순간, 길목을 차단하고 “이대로 수석을 보낼 수 없다”며 유가족들에게 장례식의 연기를 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 송자 총장은 학생들의 공개사과 요구에 “지난 7년동안 학교를 맡아온 책임자로서 책임을 느끼며 정부에 빠른 시일내에 소환을 내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으나, 총학생회 간부는 “학생들 앞에서 하지않고 밀실에서 하는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날 장례식에 참석했던 일반여명의 학생들은 오후 5시 30분 노수석군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외치며 연세대에서 남대문까지 거리 선전전을 벌였으나 경찰의 최루탄 발포 등 강경대응으로 9시경 연대로 귀환했다.

한편 연대 법학과 교수들은 이날 △경찰의 과잉 진압이 노군사망과 관련있다 △학교당국의 책임있는 행동이 요구된다 △언론의 정확한 사실보도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 경주병원 증축공사 응급의료센터 등

동국의료원(원장=조재호) 경주병원은 지난 3월 26일 개토제를 시작으로 내년 9월까지 2천 8백여평의 증축공사를 할 예정이다.

이번 증축공사는 복지동과 증축동을 건설하는 것으로 복지동은 병원앞에 △응급 △식당 △수퍼마켓 등 복지와 관련한 것들이 생기고, 증축동은 의대앞에 증축되며 각종 병로 알아보면 △1층-응급의료센터, 인공신장실, 종합검진센터, M.R.I실 △2층-외래 진료실 △3층-분만실, 신생아실, 치과외과실, 보호자 대기실 △4층-중환자실, 해부병리과, 세미나실, △5-6층-병동 △7층-기획관리실, 경주병원사무국으로 구성되어진다.

## 등록률 99% 최종등록 9일까지

'96학년도 1학기 등록률이 99%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리과(과장=박환오)는 신입생 수×4로 환산하는 법정인원에 의거 4일 현재 99%라는 수치가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학생만으로 수치를 내는 등록대상인원에 의하면 등록률은 95%정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 4일이 마감되었던 등록기간은 다시 9일까지 연장됐다.

## 교환학생 파견 대정대·용곡대 5명

본교는 일본 대정대와 용곡대에 교환학생 5명을 파견했다.

대정대 학위과정(2년) 2명, 용곡대 학부(1년) 2명, 대학원(1년) 1명으로 총 5명이 지난 10월말 선발되어 해당학교에서 지난 1월부터 수학하게 됐다.

이들은 대정대의 경우 등록금 전액 면제, 용곡대의 경우 등록금 전액 면제와 월 10만원의 장학금 혜택을 받으며 97년 3월까지 수학한다.

## 야구부 8강 진출 한대·연대 꺾고 조1위

야구부는 전국대학야구 춘계리그전에서 대학강호 한양·연세를 꺾는 선전을 치며, A조 1위로 8강에 진출했다.

지난달 28일 개막전에서 방수환(경영·3)이 연타석 만루홈런을 작렬, 대학강호 한양대를 18대 6 플드 게임으로 가볍게 물리쳤으나, 북벌 제주전문대와의 지난 2일 경기에서 선 비기는 불운을 겪었다.

또, 지난 5일 연세대의 경기에서 야구부는 극적 역전승을 연출하는 투혼을 발휘했다.

이날 경기의 수훈은 국가대표 신경연(체·3)과 백재호(경영·4)로 이들은 위기순간마다 적시적소에 홈런과 안타를 작렬, 연대 추격에 쉼기를 버렸다.

각조 상위 두팀이 올라가는 8강 결승토너먼트는 예선경기가 끝나는 8일 이후 추첨으로 결정되는 대전 표에 의해 치러진다.

## 보리수

### 생각이 일어나면 깨달으라

마음은 허공과 같은 것이다. 허공은 모든 존재를 용납하고 수용한다. 허공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다. 허공은 울음도 그릇될도 없어서 모든 분별이 없는 것이다. 마음도 그와 같아서 갖가지 모양도 담고 온갖 정보를 담아 응용이 무공무진하다.

그래서 이 세상 일은 모두가 마음먹기 달랐다고 한다.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짓는다.(一切唯心造)”라고 하였듯이 마음은 세상을 만들기도 하고 부수기도 한다. 사랑하는 것도 마음이고, 미워하는 것도 마음이다. 출름하게 되는 것도 마음이고, 잘 못되는 것도 마음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잘 써야 한다.

마음에서 생각이 일어나면 분별심으로 일을 저울질 된다. 마치 고요한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면 갖가지 사고를 일으키듯이, 마음이 일어날 때를 가장 주의해야 한다. 항상 허공과 같은 빈 마음, 넉넉한 마음으로 돌아야 한다.

죄를 뉘우친다는 것은 잘 못 생각하는 마음을 본심으로 돌이

킨다는 뜻이다.

조선시대 서산(西山)대사의 ‘선가귀감’에 있는 말이다.

“죽고도 도둑질하고 음행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다 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자세히 살펴보라. 그 일어나는 곳이 비어 있는데 무엇을 꾸를 것인가.

경(經)에 말씀하시기를 ‘무명을 아주 끊는다는 것은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라 하였고, ‘생각이 일어나면 곧 깨달으라’하였다.

요즘을 저질러지고 있는 사회악이 모두 마음에서 일어난다. 모두 어리석은 마음의 무명(無明)을 밝히지 못하고 스스로 악을 짓고만 있다. 밝은 허공과 같은 마음, 맑고 고요한 물과 같은 마음을 매연과 폐수로 가지고 썩혀, 어둡고 범새나기 하지 말자. 때때로 한 생각 새롭게 돌이켜 어리석은 생각에 쓸데없는 과욕 부리지 말고, 생각이 일어나면 곧 깨달아 밝고 맑은 본심을 찾자.

**이 법산**  
불교대 선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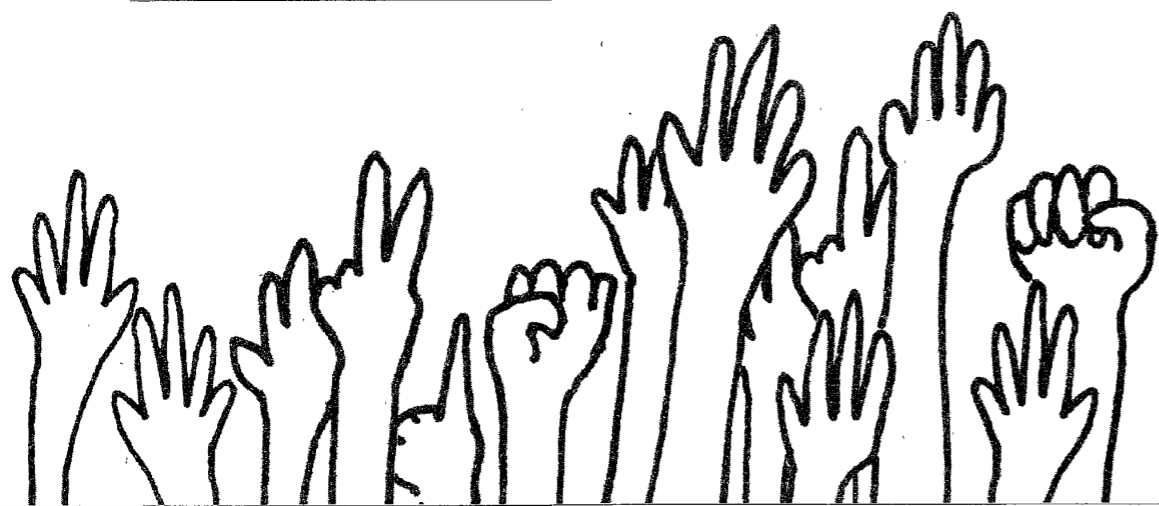
## 4·11 총선 동문 50명 출마

성명	출신학과/대학원	선거구	소속정당	성명	출신학과/대학원	선거구	소속정당
강신성일	문화예술대학원	대구 동갑	신한국당	송인식	68정치외교	경북 성주교령	자민련
강희환	61정치외교	북제주	민주당	신영근	문화예술대학원	전국구	신한국당
고명순	82행정대학원	전남 부안	신한국당	양영우	88행정대학원	전북 임실	무소속
권노갑	53경제	전국구	국민회의	양정식	78행정대학원	전북 남원임실	신한국당
김기재	93대학원박사	부산해운대기장읍	신한국당	여익구	67사학임(94졸)	경기 군포	민주당
김덕경	80경찰행정	대전 동갑	민주당	윤철상	93행정대학원	전북 정읍	국민회의
김영구	62경제	서울 동대문문	신한국당	이광우	93행정대학원	울산 울주	자민련
김영복	농대 중퇴	서울 광진문	자민련	65법학	충남 천안	충남 서천	자민련
김용호	54사학	광주 광산	신한국당	이덕화	연극영화	광명갑	신한국당
김인규	64정치외교	수원 팔달	자민련	69경찰행정	울산 남갑	자민련	자민련
김정태	88대학원박사	수원 권선	민주당	이영창	58법학	경북 경산, 경도	신한국당
남병우	59경제	수원 팔달	신한국당	이원범	65행정	대전 서갑	자민련
남희삼	81행정대학원	인천 연수	자민련	93행정대학원	충남 부여	신한국당	신한국당
박규식	66경제	부천 소사	자민련	이희상	69법학	수원 장안	무소속
박남수	92행정대학원	서울 노원갑	무소속	임덕규	60법학	충남 금산신산	무당파
박동인	65법학	충남 천안	민주당	정관희	72통계	수원 장안	무소속
박상규	60국어국문	전국구	국민회의	정재철	52정치	전국구	신한국당
박영석	71정치외교	경기 파주	민주당	69경영	경남 통영교성	경남 통영교성	무소속
박왕식	68정치외교	수원 팔달	국민회의	지연준	94행정대학원	가계	민주당
박정영	67정치외교	경북 성주교령	무소속	최국	60영문	충남 보은유원정동	민주당
박재상	80행정대학원	과천, 의왕	자민련	최상용	68행정대학원	경북 영천	자민련
박래근	75정치외교	충남 서산	신한국당	최영태	77행정대학원	포항북	무소속
박희부	65법학	충남 연기	신한국당	최형우	63정치	부산 연제	신한국당
백정수	93행정대학원	경기 시흥	국민회의	황규선	95대학원박사	경기 이천	민주당
송영기	76공업경영	서울 성북갑	무당파	황명수	53정치	충남 아산	신한국당

제96·개교100주년기념사업본부

# 내가 먼저...

개교90주년, 제가 빛내겠습니다!



## 개교90주년기념행사 지원봉사자 모집

동국대학교의 자랑찬 역사와 전통, 21세기를 향한 동국100년의 비전을 펼칠 개교90주년기념행사의 홍보활동 등에 참여할 학생지원봉사자를 찾습니다. 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봉사자 모집 안내

대상	·단체별 참가자: 동아리별/학과별/교동문회별/기타 ·개별참가자: 재학생 및 휴학생
활동내용	·각종행사홍보 행사진행 안내/질서유지

개교90주년 주요기념행사	·KBS열린음악회: 1996. 5. 7(화) 18:00(대문동성) ·운이상불고음의제(雨天, 가래의 하늘을 날아) 1차: 1996. 5. 15(수) 19:00(여의도KBS홀) 2차: 1996. 5. 17(금) 17:00(불상암) ·(비전) 동국100년후원의 밤: 1996. 5. 29(수) 18:00(일빛호텔)
신청안내 /접수	·신청서(소정양식: 학생부처) ·학생부(본관 3층, Tel: 260-3047/8)
신청기간	1996. 4. 1(월)~4. 12(금)
활동기간	1996. 4. 15(월)~5. 31(금), 7기중장기적 활동 또는 행사별 참여
비고	·기념사업추진도록에 참가자 명단 수록 ·활동내용에 따라 소정의 활동비 및 기념품 지급

참시원 만드는 열린교육  
**동국대학교**  
개교90주년기념행사집행위원회

# 열린 글터

개성있는 목소리를 가진 동대인을 찾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글, 사진 만화를 보내주세요. 하이텔을 이용하실 경우, DGU 10번계시판이나 ID: dpress@mail을 통해 투고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260-3491·2 (0561)770-2057

## 동/문/칼/럼

### 사회생활 위한 인간간의 예의범절 아저씨보다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대학에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들은 요즘 시대적 사명인 교육 개혁과 동국중흥의 양바퀴를 힘차게 돌리는 차축(車軸)의 역할을 하고 있다. 동국발전의 성공을 향한 길에 쌓여가는 일들이 힘겹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 뒤 하나씩 해결되어 그 성과가 눈앞에 나타날때면 힘들었던 과정은 모두 잊고 기쁨만을 느끼게 된다.

우리들은 부서의 성격에 따라 학생들을 상대로 일을 하게 된다. 동국의 학생들은 지적능력이 있어 상위에 있음이 이미 입학과정을 통해 입증되었지만 이들의 배나 예의범절도 매우 잘 갖추어져 있을 것임을 이들과 접할때마다 느낀다. 아마도 이러한 예의범절은 가정교육과 함께 고등학교까지 이르는 학교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일 것이다. 이제 대학에서는 사회생활을 위해 갖추어야 할 인간간의 예의범절을 배워야 할때인 것이다.

그런데 한가지 이들에게서 미숙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 때때로 나는 학생들로부터 아저씨라고 불린다. 신입생뿐만 아니라 막 졸업하고 취업을 한 사람조차도 때로

아저씨라고 부른다. 내가 아저씨가 될만큼 나이를 먹었고 또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므로 선생님이란 호칭을 제외하고 학생들로서는 적당한 호칭을 찾을수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강의실안에서 훌륭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는 우리들의 역할을 비록 가르치는것이 아니더라도 그들의 인간성장에 간접 또는 직접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나는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행정부서를 찾을 때에는 아저씨라는 호칭보다는 선생님이라는 경칭을 사용하기를 희망한다. 우리들이 이렇게 불리울때 학생들의 눈 의사찰에 대한 행정적 배려에 더욱 세심하여지고 그 해결에 수고를 아끼지 않는 마음가짐이 배어있을 것이라 믿는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학교밖에서도 사회적 관계속에서도 '선생님'이란 단어를 사용한다면 우리 동국학생들은 세련된 품위를 가진 사람으로 인정받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김영수 (취업과)

### 대학 공동체 건설 위한 노력 대학주체의 가치관 재정립 필요

2년 남짓한 군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바라본 세상은 누구에게나 그렇겠지만 낯설다. 하루하루 빠듯한 군대일과 많은 부분 정리되어 가던 이곳 대학생활에서의 기억, 그리고 남의 나라 일처럼 먼 거리감으로 다가오던 사회현상들, 어느덧 이제는 촌음으로 느껴지는 나름대로 소중했던 시간을 마감하고 다시 맞이하는 대학생활은 꽤이나 가슴 벅찬 현실이기도 하다. 몇년만에 맞이하는 교정의 거리, 친구, 후배 그리고 교수님, 또한 강의실까지 반갑고 새로운 것은 모든 학생들이 가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런 현실을 안겨다 준다. 흔히 90년 그리고 91년 학번 세대가 사회와 대학에서 비교적 많은 변화를 겪은 세대라고들 한다.

군부독재 폭압이 말미에 있었으며, 이미 다들 깨어난 세력에 의해 파헤쳐진 그들 세력의 본질과 재벌구조에 맞서 대응하는 대학내의 모든 움직임은 끈끈할 수 밖에 없었던 선배들의 공동체적 전통을 다스려 나가야 하는 시기에 이르렀다. 학과초에 등록금문제, 학교 각기구는 정경상황으로 인해 턱도 없는 등록금 인상률의 모순을 고민하며 선배 후배를 이끌어 주었으며 때론 군부독재의 광폭적 살인과 부패, 모순에 맞서 일어난 투쟁은 녹아들어가듯 때때로 경대교과까지 최후연기 담뱃말뚱으로 손을 잡고 달려나간 시기이기도 하다. 본질적으로 다를 바없는 그이후 시기 허울뿐인 문민정부 출범은 시대의 변화를 불러일으켰다고 한다. 92년 백기만 선생님의 말씀이 불현듯 떠오른다. '더이상 분해당하지 말라' 분해하지 말라 자

기자신을 교정에 뽐낼 자못자, 자신의 정치적입장과는 달리 경제적인 사리를 사르기위한 동료들의선거 아르바이트 및 안되면 집회, 우연히 들려본 녹아들은 파편화되어가는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듯 그날의 그함성과는 거리가 먼듯하다. 학교측의 재정확충육구를 근거로한 편입생확대 및 학부제는 풍나물 강의 속에서도 어떤 문제제기도 없이 그렇게 조용히 해체되어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없는것인가? 해체의 사회에서 분열의 대학 우리자신의 발로로부터 우리자신을 아무물수 있는 대학공동체의 건설을 위해 그 어느때보다 대학주체의 올바른 가치관 재정립이 필요할 때라 본다.

김정준 (상경대 관광경영학과)

### 대학시절 건강관리



현대사회는 첨단과학과 순수지연을 보호하고자 하는 시대적 변화와 인간의 욕구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음을 우리들은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음이다.

육수에 근접하는 내역시 격세지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데, 흔히들 놓치 않기위한 비결들을 찾느라 몸을 비틀고 보약찾아 한 번도 전역을 찾아다니는 광경, 아니 부족해서 해의까지 원장다니는 우리들의 모습을 자주 보곤 한다. 도대체 왜, 건강유지를 위해 정열을 쏟고 있는지, 병들고 늙고 나약해지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다.

우리는 가끔 어린시절 추억들을 되새김 하는데, 오늘 이 지면을 통해 나의 화학 시절중 특히 양성한 열기와 젊음이 불타오르는 육신을 가졌던, 질적인 면에서 최상이라 볼 수 있는 대학 시절 나의 건강관리를 뒤돌아 보고, 후배제주의 건강관리에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나는 어린시절부터 운동을 좋아해서 대학시절에는 레슬링을 했었다. 당시에 건강을 생각하고 시작한 것은 아니고, 다만 육체관리를 통한 정신적 성장을 이루기위한 과정으로 운동을 시작했음을 뿐이나, 굳이 건강관리를 위해 전문운동은 권하고 싶지 않다.

아무튼 기초적인 운동은 나의 육체적 건강관리를 위해 일조를 한 것만은 사실이나, 지속적인 운동이 없다면 지금 나의 건강상태가 화학시절 건강과 같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내가 재직하고 있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매년 정기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가 증가될 테니가 말이다.

이름 붙여 건강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할 것 같다. 병이 생겼을 때 나이를 먹고나서 건강을 찾으려는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흔히 재물을 잃는 것은 생애의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생애의 반(半)을 잃는 것이며 '건강을 잃는 것은 생애의 모두 잃는 것'이라고 하지 않는다.

앞서 나에게 운동이 중요한 건강의 한 요인이었지만 병행해서 한층 강하게 만들어진 것은 금연과 절주가 촉매제였던 것 같다. 물론 패혈증이 많이 필요로한 운동을 했으니 담배를 피우는 것은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것이었고, 술은 워낙 좋아해서 한때 폭음으로 근육을 치른 적이 있었다. 결국 금연·금주의 길을 선택하지 벌써 20년이 되었다. 모르게 적당하면 육체의 병행유지를 유지할 수 있었던 어느 한쪽이 과(過)현상이 발생되면 몸에 이상이 생기는 조물주의 섬세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부족한 것은 만들어 채워주고, 남으면 배설시키는 항상성(恒常性)(Homeostasis)을 갖고 있음은 익히 알고 있는 상식일 것이다. 결국 자기몸에 알맞게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부단하게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자세가 건강을 지키는 것이고, 또한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법이 될 것이다.

'국가의 장래를 보려거든 그 나라의 젊은이를 보라'는 말과 같이 후배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해져 세계속에 우뚝 선 대한민국이 될 것이 아닌가.

끝으로 후배제에게 드릴 말씀은 항상시절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해 열심히 학문에 전념하면서 여유를 찾아서 건강을 지키고 증진하는 데도 시간을 배려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 박철동

(한국건강관리협회·법학69졸)

- ▶총선 전략 3단계 당선이 된다. 역사를 바로 세운다. 03이를 법정에 세운다.
- ▶나는 대학생이니까, 교육재정확보 면이 확실하 보장되도록 하겠다.
- ▶한번후보는 연일한 후보
- ▶첫째, 우리학교 운동장을 사겠다. 그리고 내가 운동장을 직접 관리하겠다. 둘째, 학교수입을

주겠다. 유권자들이 좋아할까야. "통일이 될때까지 투쟁! 투쟁! 김03 타도하는 행렬한 투쟁!" 참고(어제밤 너와 나의 단둘이서 party! party! 아들이 울 때까지 행복한 party!)  
▶그렇지 않다.  
▶우리대학의 높으신 양반들은 유아독존이라 무척 잡고 지리만 지키는가? 학교 구석구석을



### 내가 만약 총선 후보자라면...

줄이겠다. 그리고 휴가를 많이 권장하겠다. 셋째, 술집(학교근처에서 안주값을 많이 내리겠다. 넷째, 민화방 개업을 적극 권장하고 민화의 질과 양을 개선하겠다. 다섯째, 내가 당선되면 국회의원선거를 아예 없애고 종신제로 하겠다.  
▶나는 투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D·J Doc의 '미녀와 야수'를 불러

순찰할때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재단은 돈만 대고 or 돈만 챙기고 자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돈 낸 것 만큼 or 경건 것 만큼 업무를 관리하여 확인 정립해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대학의 모든 재단이 일을 하는 대학을 만들기 위하여 대학재단관리특별법을 만들겠다. 일 안하면 짜르게...

### '동맹휴업'실행의 근본적 모순 존재 신입생에 대한 학자투 설명이 앞서야 하지 않나

'학우 수석이가 죽었습니다' 31일 한겨레 신문에 실린 한정의 사진, 그 얼굴의 표정에는 무수히 많은 의미들을 하나로 꿰뚫는 비통함이 서려있었다. '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이라는 주제를 달고 시작되었던 동맹휴업 첫 날의 사건이었다. 또다시 학우의 죽음을 부른, 그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는 것은 앞으로 계속 거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며, 나는 조금 시름을 앞당겨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많은 우리의 현실 상황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29, 30일 동맹 휴업을 위한 총투표일이 26, 27일 이라고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내에게는 투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우리가 '휴업'이라는 행동을 하는데, 그것을 실행하는 근본적인 모순이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행동 유도의 근본적 모순(등록금 고갈 인상의 부당함, 더 나아가 국가의 교육 재정 확보의 취약함)의 바른 인식에서부터 비롯된다. 하지만 그 모순들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과 이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묻고 싶다. 이간단순한 감정으로 접근하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사안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과 이해가 자유롭게 실행되는 장(場)이 바로 '과포'라고 생각한다. 물론 과포 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경로들을 통해 문제가 무엇이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얼 의미하는지 알아갈 수도 있다. 아무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합의점을 이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과포 '과포'는 잘 이해되고 있는 것인지, 그 과정은 타당한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는 성숙한 나만의 자리인지 묻고 싶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투표'이다. 이번 투표의 의미는 우리의 합의점을 실천하는 하나의 행동적 방법에 대한 찬·반의 의견을 묻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견을 묻는 하나의 형식으로서의 투표가, 특히나 '학자투'라는 것이 매우 생소할 새내기에게 무엇을 던져줄 수 있었을지 생각해볼 수 없을 것이다. '학자투'의 낯설음을 떠나서 그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더욱 신중했어야 한다고 본다.

과연 우리가 당면한 현실에 대한 문제 인식은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투표는 무리없이 실행한 것인지, 단

지 형식적인 찬·반 가르기는 아니었는지 점검하고 반성해야 한다. 현실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더 나아가 실천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분위기는 의외로 형성할 수 없다. 학자투의 진정한 주체가 누구여야 하는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소수에 의한 소수를 위한 투쟁이란 결국 원점으로 되돌아 오는 정체의 운동이 될 것이다. 투표란 새삼 강조할 필요없이 중요한 권이다. 물론 어떠한 불, 원칙만을 고수하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원칙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실이 답아낼 수 있는 커다란 내용을 위해서 그 원칙들을 지켜나가자는 것이다.

투표란 새삼 강조할 필요없이 중요한 권이다. 물론 어떠한 불, 원칙만을 고수하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원칙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실이 답아낼 수 있는 커다란 내용을 위해서 그 원칙들을 지켜나가자는 것이다.

김경원 (야간강좌 사회과학대 신문방송학과)

### 목errick

#### 축하합니다

- 정치학 연구실 새내기여러분, 환영합니다. 열심히 배우고 부단하게 실천하는 대학인이 되기를 합시다. - 늬는 새내기 김시용
- 관수아! 학생회장 당선, 축하합니다. - 동기가
- 백상응원단 20기 신입단원의 오디션합격을 축하합니다. - 백상 19기들
- 사우회 신입생환영 - 사우회일동
- 영과여고출신 새내기들! 입학 축하해. 우리 언제 한번 모임시다. - 법학과 95
- post 화려한 출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팡
- 김지성 입학축하한다.
- 경미, 정시아 동대신문사 일사를 축하한다. - 유종

### 축하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37기형들이 38기 받들겨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다음주도 기대하며 38기후배
- 태주호, 한주동인 협조. 저희로서 이번 한주도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 예쁘고 싶은 후배
- 독문과 조기축구회선배님들 비오는데 축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검은별
- 현성이오빠, 사수대 뛰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남대문에서 만났던 후배
- 등록금인하와 대선자금공개를 위한 투쟁중 연세대 법학과 친구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친구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와 투쟁만이 진상을 바꿀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말만듣고의 힘을 모아 투쟁합시다. - 법학과 95 정

### 동/약/광/장

#### 다할관 식당

- 지난 3월 31일은 우리의 이쁜이 나라 생일이었어. 모두 모두 많이 축하해 주세요. - 언니나
- 총학·총여 출범식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 언·협 선전국장
- 관·경학부 부과대 경희가 롯데리아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대요! 우리모두 많이 많이 축하합니다. - 동기 일동

### 온방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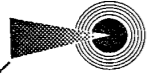
#### 축하합니다

- 여총학 출범식을 축하드립니다. - 상대노래패·강철사랑
- 4월 1일은 만우절. 승일이가 때어난 날! 거짓말이 아닙니다. 승일을 위하여 - 일면장

### 그리고

#### 알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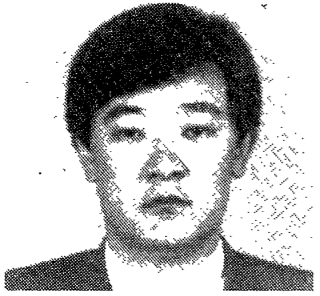
- 탈패가 방을 청소했습니다. 놀러 오세요. - 탈패 민만세
- '96 청년 법정인 한마당이 무사히 개최되길. - 원산
- 복지동공의 새날을 열어갈 학생복지위원회의 권투를 바랍니다. - 일지매
- 새악사 화이팅! 니도? 니도. - 김금아, 원기아, 송화아 불바람이 살랑살랑 부는구나. 우리 하나 건지러 가자. - 친구 님
- 윤호오빠의 완쾌를 기원해. - 포동
- 산업안전공학과 과대오빠 제발 한번만나주세요. - 사랑하는 후배가
- 우리 '시림'의 새 친구가 된 선희, 지영, 지영이를 환영합니다. - 시림 일동
- 재철, 성기가 열심히 해라. - 형님이
- 팸! 미모의 여인과 아름다운 연애를 하게되길 바랍니다. - 친구 애인이



시사논단

교육재정진단

GNP 5% 확보해도 대학투자 미비 대학별 자체노력 통한 재원확충 시급



공은배 한국교육개발원 기획조정실장

교육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에 투자되고 있는 공교육비는 우리나라 교육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데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교육계에서는 교육재원의 추가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그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를 한마디로 대변해 왔던 용어가 "GNP의 5%의 교육재정 확보"이다. '80년대 중반부터 교육재정의 규모가 GNP의 5% 수준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전개되어 왔는데, 이것이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정책기조를 이루게 되었다. 그동안 GNP 5%의 개념, 적용 범위 및 확보 방안 등과 관련하여 교육계와 경제계의 견해차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95년 8월 30일 그 확보 방안이 발표되기에 이르렀다.

GNP 5% 교육재원 확보란 '95년 기준 교육재정의 규모(학생 납입금 제외, 타 부처 교육예산 포함)가 GNP의 4.11%인데, 이를 '96년 4.53%, '97년 4.8%를 거쳐 '98년도에 5.0%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고 그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96~'98년간 순수하게 추가로 확보되는 재원의 규모는 9조4천억원이다. 이 재원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30%와 2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교육세의 세입 확충 및 세율 조정을 통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이러한 규모에 동기간 동안 증진과 같은 추세로 교육재정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할 경우 확보되는 52조 9천억원의 합하면 3년간 총 62조 3천억원(납입금 재원 포함) 65조 8천억원이 확보될 전망이다. 연평균 규모로 환산하면 20조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규모의 재원이 확보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나라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충분조건이 못된다는 것이 자명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교육재정의 구조는 인건비, 운영비 및 초·중등 사학의 재정 결함 보충과 같은 절실한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

히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정지출적인 성격의 경비가 전체의 70% 정도로 구성되고 있다. 따라서 GNP 5%의 교육재원이 확보된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순수하게 교육 여건의 개선을 포함하여 교육개혁을 추진하는데 투자될 수 있는 가용재원은 30% 정도에 해당되는 약 20조원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이러한 재원을 투자하기 위하여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 교육의 인건비 추구, 21세기 대비 교육지원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투자원칙으로 투자 우선순위 재조정을 통한 주요사업 중점 투자, 교육제도 및 교육방법 개선, 사업비의 최대한 확보, 교육의 자율과 경쟁 유도를 들고 있다.

교육 개혁을 위한 사업비로 향후 3년간 20여조원이 투자된다 할지라도 대학교육 부문에의 투자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 가용재원 중에서 약 80%에 해당되는 재원은 초·중등 교육 부문에 투자되고, 나머지 20%인 약 4조원 정도가 대학교육 부문에 배분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다. 대학교육 부문의 투자는 주로 정보화·세계화 시대의 대학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학술연구비 수혜율을 높이는 등 학술연구수준의 세계화, 실용·실습 기자재 확충 등 도서관 운영 지원 확대 등의 교육여건 개선과 함께 대학의 자구노력에 따른 행정·재정 지원을 차등화 하는 방향에서 계획되고 있다.

대학교육 부문에 투자되는 재원의 규모가 총액보다 증대된다 할지라도 결코 만족할 만한 수준은 못된다. 이 중에서도 사립대학에 투자되는 몫은 더욱 제한될 수밖에 없다. 또 투자가 계획되는 것은 대부분의 영역도 경쟁지원을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은 발전을 위한 자구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대학별로 기울이는 자구노력의 정도가 자체 재원을 확보하는 방향이 될 뿐만 아니라 정부 부서의 재정지원을 타 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자구노력은 우선 재원의 추가 확보를 위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립대학의 재원은 정부지원을 제외하면 학생부담, 법인부담 및 사회·민간지원이 있다. 학생부담인 납입금의 보다 합리적인 책정을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 형태를 고려한 계열·학과별 교육원가를 분석하고 그에 따라 현재의 같은 계열·학과별 납입금 차이가 재검토·조정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법인 부담 및 민간으로 부터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확보된 재정을 합리적·효율적으로 배분·활용하여 경비의 지출 효과를 높이는 것이며, 이를 위한 대학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경주될 필요가 있다.

◆ 민민은 정치세력화를 바라보며

민족민주운동 정치력, 총선으로 복원 여론 수렴하는 정치운동으로 대선 대비

지난해 말 전국연합의 조직발전특별위원회 논의가 있고 난 뒤, 지난 2월 25일 전국연합 대의원대회에서 조직발전에 대한 특별결의가 있는 후 민족민주운동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관심이 과거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논의도 다양해 진 것이 사실이다.

정치세력화의 역사

민족민주운동의 정치세력화는 이미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아니 그것을 부정할 사람은 민족민주진영에서 아무도 없을 것이다. 당연히 정치세력화를 해야 하며, 그때때 민족민주운동은 좀더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세력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치적 영향력을 갖는 것을 말한다. 현재 민족민주진영에서 이야기되는 정치세력화는 주로 정당 또는 정치조직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다.

정치조직, 혹은 정당문제가 민족민주진영에서 제기된 것은 88년부터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주로 개별적인 수준이었으며, 실천의 양태도 주로 야당에 입당하는 식이었고,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는 극히 소수였다. 그후 전민련 말기(89년)부터 독자정당 논의가 본격화 되었고, 이들은 민연추의 민중당으로 바뀌어 간다.

이들의 문제의식은 전민련의 조직형태를 가지고는 87년 이후 변화된 정세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정당을 구성하여 국민들에게 접근해야 한다는 논지였다. 그러나 92년 총선과 대선에서 독자후보전술이 실패하자 몇몇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야당에 흡수되었거나 운동의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이렇듯 민족민주운동의 정치세력화는 지난날 과정에서 명백하게 실패하였다. 즉 시기와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모하게 정치세력화를 추진한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새롭게 제기되는 정치세력화의 배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정치세력화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운동의 내적인 문제와 객관적인 시기, 조건이 형성되고 있다는 인식에서이다. 즉 97년 대선이 끝나면 우리나라의 정치지형은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으며, 그 시기를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객관적인 시기, 조건의 변화와 함께 운동내부의 내적인 요인이 그 변화를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다시말해 지금의 운동은 흡입구조만 있을 뿐, 배출(또는 진출)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배출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 이제는 흡입구조마저 문제가 생기고 있다. 즉 사람의 진출도 그렇고, 요구를 정치적으로 승화시키는 작업도 바로 이 배출구조에서 담당하지 않으면 안되는 데, 민족민주운동은 기껏해야 전국민적인 투쟁-여론을 하고서야 왜곡되게 실현하고, 그나마 자신의

자신으로 남기지도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두번째, 상황이 이전과 달라졌다는 것이다. 즉 이전에는 '독재타도'라는 단어로 모든 분노를 모아낼 수 있었으나 지금은 그렇지 못하며,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일지라도 문제의식은 다양하다. 즉 사회의 관심영역이 다양해지고, 그에 따라 집중점도 느슨해졌다는 것이다. 운동의 저변이 넓어진 반면 그 집중성이 현저히 약화된 것이다. 그것은 주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인 상황의 변화에 기인하는 측면이 많다. 그리고 이것은 정치적 흡입(수렴)구조가 취약해졌다는 말이다.

마지막으로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대되어 정치행위=선거라는 등식이 국민들의 마음속에 다져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다양한 시민운동이 자리잡고 있으며, 민족민주운동이 담당했던 시민들의 정치적 자유욕구를 한편으로 왜곡하면서도 한편으로 담아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듯 이미 민족민주운동은 그 원칙이 무엇이었든 떠나서 배출에서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정치적 욕구를 모아내는 것에서도 동맹결합에 걸려있는 현실이다. 그리고 그것을 대신하는 집단으로 시민운동과 정당들이 있는데, 정치적 배출구조를 갖추지 못함으로써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세력화의 내용과 과제

정치세력화의 핵심은 민족민주운동의 정치력을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80년대(야당) 정치활동 금지법에 묶여 정치력을 못할 때) 민족민주운동은 야당의 뚝가 지 해야 했고, 또한 국민들은 그것을 기대했다. 85년 민통련이 출범했을 때, 민통련은 말그대로 재야운동이었지만 정치투쟁체였다. 그후 전민련에 들어와서는 사회운동적인 측면이 강화되었고, 이것은 전국연합에 와서 더욱 확실해졌다.

민통련에서 전국연합으로 발전해온 과정은 대중운동적인 측면이었고, 정치적 측면은 아니었다. 따라서 지금 민족민주운동은 대중운동적인 발전을 정치력의 발전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되는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그렇지 않으면 대중운동력도 고갈되고 만다는 위기의식을 갖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정치세력화의 내용은 당연히 정치력을 회복하는 것에 일차적인 관심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상적이고 이익 집단적 성격을 지닌 대중운동을 전체 국민운동, 정치운동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그러하여 정치적 배출구조와 국민적 요구수렴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전방위적인 정치투쟁체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조직도 재편에 들어가야 한다. 즉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진정한 통일전선적 단일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부문중심의 운동구조를 지역적으로 재편해 들어가야 할 것이다.

김성희 (전국연합 교육선전국장)

사설

주인의식으로 대동단결을

대학마다 개혁과 개선을 통한 새로운 도약에 승부를 걸고 있다. 그야말로 적자생존의 준엄한 원리를 절감하면서 그동안 타성적으로 운영해오던 학사행정을 대폭 손질하고 교과내용과 교수방법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알다시피 우리 대학은 그러한 각성과 실천의 선두를 나서고 있음을 자부한다.

그런데 이 도도한 흐름이 전구성원들의 절대적인 확신과 동참으로 효과적인 목표달성으로 내달려야 할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기저기에 정체의 기미가 나타나고 있어 안타깝다. 대학이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고심하여 모색한 여러 방향과 지침에 대해 정력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거나 소수적 이기주의와 현실안주를 위한 퇴역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 마치 비관적 지성의 모습으로 착각되어서는 안된다.

재정확충을 위한 기금모금 활동, 수석사업 추진을 위한 프로젝트 개발, 연구비 유치에 위한 대외섭외, 산학협동을 통한 연구환경 조성의 노력 등이 학교경영을 주도하는 상층부만의 일이 아니다. 전동국인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동국의 무궁발전을 위한 소명을 실천하는 주인으로서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요즘 동국의 기류는 이러한 각성과 분발과는 다른 모습들이 가끔 드러나고 있다. 정말 애써 마련한 학술문화관이 공간사회의 발미나 되고, 학부제 실시에 따른 후속적인 보완책이 진행 중임에도 제도자체의 시행착오로 물이거리는 의도나 드러나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여러 공사에 따른 번거로움을 따루가내 비난하고자 한다.

지금 우리는 서로를 탓하고 불신하기 보다는 상호신뢰를 돈독히 하여 합심협력의 미덕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 여전히 반목과 질시, 이질과 편견만으로 평가하기를 하고, 또 헐뜯기, 울려놓고 흔들기, 뒤통수치기의 작태가 한사바해 정산되어야 한다. 제도변혁에의 적응과 자기개발에 몰두하기보다는 시비와 음해의 술수가 갖든 분과주의가 동국의 주변을 기웃거리어서 안된다.

요즘 이런저런 현안을 내세우며 벌어지고 있는 학과 또는 대학, 학내구성원들 사이의 불화와 문제제기는 더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된다. 전동국인은 냉정하게 자기자신이 살고 동국이 사는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짐채와 부진을 떨치고 개혁과 쇄신의 열차는 이미 출발하였다. 바이흐로 90주년을 맞이하여 준비되고 있는 모든 행사에 앞서 무엇보다도 전동국인의 대동단결과 총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 새로운 한세기를 내다보는 동국의 비전을 힘차게 열어가는 주인들의 책임을 새삼 명심하자.

중국만평

강성수



국민여러분, 한국과 일본경기가 이후 심심하셨죠?

이제 흥미진진한 슈퍼게임이 시작됩니다! 군사분계선에서 펼쳐지는 남북의 자존심을 건 한판 머리싸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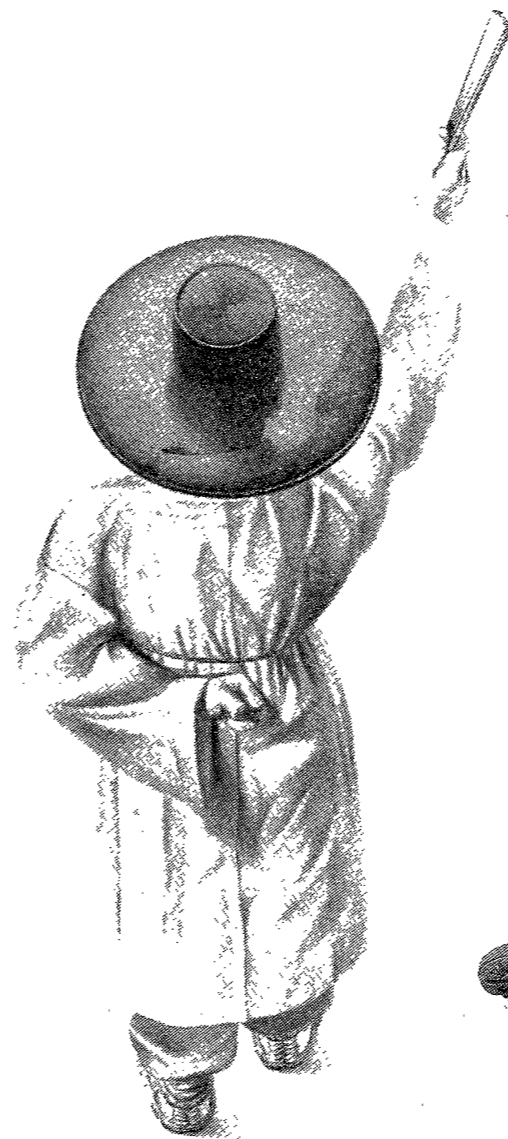
한국의 무한에너지, 그 땅에 간다--11 독도와 인양복편



\*인양복(安陽服) 조선시대 민중의교과 숙종 22년 일본이 독도(獨島)에 침범한 사실을 문해해 공적으로 일본의 사과와 용인(容認)을 받아냈다

나라가 못하면 내가 하리라

“나, 울릉·우산양도 감세관이오.”



1696년, 안양복은 독도를 지켜냈습니다. 1996년, 우리는 독도를 다시 지켜내야 합니다.

일본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일본담배를 즐겨 피는 95학번 영환이도 일제 오디오 소리가 더 좋다는 96학번 미숙이도 우리 모두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안양복이 누구지?' 하고 되물을 수많은 학우들-바로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 홀로 당당히 일본땅 태수에게 찾아가 스스로를 '울릉우산양도 감세관'이라 밝히며 독도와 우리 바다를 침범한 사실에 대해 엄중히 사과할 것을 호령했던 한 어부가 있었으니 바로 안양복이었습니다. 독도문제에 분개하는 오늘의 우리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우리 한국인의 것입니다. 그때 그에게 후호의 두려움도 움츠림도 없었습니다. 오직 지켜야 할 우리 것을 지켜겠다는 서릿발같은 조선의 기개(氣概)가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그 기개(氣概)가 한국인의 무한에너지로 이어집니다. 독도여! 안양복이여! 이제! 1996년의 한국, 우리 대학인이 지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하는 발걸음-버팔로가 함께 합니다.



글 심는 순서

- 1 4.11 총선의 의의
- 2 총선 승패의 최대 관건
- 3 총선 이후 대선의 방향

박 병 식

(법정대 행정학과 교수)

오는 4월 11일은 2백53개의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치른다. 3월 26일 89명 후보들이 평균 55대 1이라는 경쟁률 하에 공식적인 선거유세에 들어가 지역별로 치열한 선거전을 치루고 있다.

이번 총선은 김일성사망 이후 북한의 경제적 사회체제적 불균형에 따라 남북통일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과, 1991년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후 두번의 지방선거를 치루었고 국민소득 1만불을 넘어서 국민들의 사회적 경제 여건이 성숙한 속에서도 치루어진다 는 점, 그리고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여 각종 개혁정책을 실시한 후 1년 8개월이 넘는 집권후반기에 그동안의 실적을 평가 한다는 점에서 이번 총선은 그 의미를 지닌다. 또한 이번 총선은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21세기를 맞아 한국의 새로운 국가이념이 등장할 수 있는 지를 알 수 있는 단서 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번 총선에 대한 이번 총선의 승패 요인들은 무엇일까? 그 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전국적 차원과 지역구 차원으로 나누어 보면, 전국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승패요인은 각 정당별 보수세력을 표방하고 있어 뚜렷한 차별성을 나타내지 않지만 선거의 쟁점을 분석해 보면 첫째, 개혁과 보수의 대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번 선거는 그동안 YS정부가 추진한 개혁정책이 유효하였는지와 그 절차가 합당했는가에 대한 평가이다.

둘째, 지역주의의 대결이 투표시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작년 지방선거는 3김의 지역패권주의를 그대로 끌어내 세 3김시대를 열었으며, '3김의 정치적 수명은 신체적 수명과 같다'는 말을 만들 어냈다. 이번 총선도 지역주의의 구도하에 이루어지겠지만, 이 지역주의가 얼마나 극복될 수 있을 지가 내년 대통령 선거의 향배와 연결되어 중요한 관건사 가 될 것이다.

셋째, 안정론과 견제론의 대결로 안정론자들은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의석수 이상을 확보 해야 한다는 주장과 만약 안정의석이 안 될 경우 안정적인 국정수행을 위해 정계 개편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견제론자들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해야 하며, 집권당 중심의 일방적인 정계개편을 반대한다는 주장이다. 유권자들이 안정론 과 견제론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총선이후의 정계개편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변수가 될 것이다.

◇ 기획 II - 총선 승패의 최대 관건

개혁과 보수·지역주의의 대결이 관건 도덕성 갖추고 친근한 후보자 유리

이런 전국적 차원의 총선대결구도와는 별도로 각 지역의 입후보자들은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 지역구 차원의 투표요소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구 차원의 선거승패요인은 과거에는 금전적인 요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통합 선거법 이후에는 공선협, 시민단체 및 후보자간의 감시감독강화로 인해 다른 요소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첫째, 학연, 지연, 학연이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한국 국민의 정서가 아직도 가족주의적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투표시에 학연, 지연, 학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 도덕성의 대결로 기존의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감과 의원들의 특권화, 정경유착에 대한 반발로 깨끗하고 도덕적인 후보를 유권자가 선호하고 있다. 이로 인해 후보자들간에 도덕성 경쟁이 이루어져 이 과정에서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후보들은 자연 도태되게 된다. 셋째, 개인의 경력과 능력의 요소이다. 각 입후보자들은 지역구민들의 복리를 최대한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하여 제시함으로써 유권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정책대결은 입후보자의 올바른 정책개발능력과 임기중간의 의정활동내용을 결정하여 주기 때문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만, 각 공약들의 실현가능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증절차가 잘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사형발령과 같은 공약들을 남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섯째, 유권자들과의 일체감대결로 얼마나 유권자가 입후보자와 연대감을 느끼느냐이다. 국회의원선거는 대표적인 간접민주주의체제로서, 선거가 끝나면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소외감을 느끼게 만들어 투표시에 자신의 의견을 정취해 줄 수 있는 후보자에게 강한 연대감을 느끼게 된다. 이런 점에서 얼마나 유권자의 어려움이나 애로사항 및 정책적인 건의사항들을 수렴하여 국정에 반영해 줄 수 있는 입후보자의 일체감이 투표시의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이런 총선 승패에 미치는 요소들 중에서 이번 선거에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전국적 차원에서는 개혁과 보수의 대결과 지역주의가, 지역구 차원에서는 도덕성과 유권자와의 일체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개혁과 보수의 문제는 김영삼정부가 수행해 왔던 각종 개혁정책들이 3득(득당, 득선, 득주)이라는 비판을 들을 정도로 절충과 방범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만 국민들이 과연 개혁정책들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수용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이 점에서 야당은 개혁정책의

문제점과 부당성 등을 집중 홍보할 것이며, 여당은 개혁의 당위성과 그 성과를 널리 알릴 것이며, 이 양자에 대한 국민의 판단이 선거에 크게 반영될 것이다. 지역주의는 1971년 이래로 심화되기 시작하여 작년 지방선거에는 지역주의가 그대로 선거에 반영되어 광역방위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선거도 각 정당은 지역주의가 광역방위라는 사실을 공인하면서도 지역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한 선거전략으로 지역감정을 더욱 자극하고 있다. 감정을 자극하는 선거운동은 선거후에도 골을 깊게 파고 양극을 남기게 된다는 점에서 한국 정치발전에서 가장 극복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유권자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의식수준이 국제화되면 어느 정도 지역주의는 극복되겠지만 이번 선거에도 지역주의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역구 차원에서는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신뢰할 수 있는 도덕성 있는 입후보자는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며, 또

한 간접민주주의로 인해 국회의원에 대한 유권자의 소외감과 박탈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가깝고 친근한 입후보자에게 우선적인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요소들의 영향하에 선거결과가 나타나겠지만 이번 선거는 21세기를 맞이하여 해방이후 누락되어온 문제들을 해결하고, 깨끗하고 비전있는 정치, 활력있는 경제, 생동감있는 시민생활, 단합된 국민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통일한국의 위업을 달성하고 태평양 시대의 맹주로서 확고한 기반을 갖추어야 하는 시대적 배경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사실을 명심하고 유권자들은 강정에 의한 투표가 아닌 이성과 합리적 판단에 입각한 투표를 해야 할 것이다. 조너선 팀 감독의 영화 '필라델피아'에서 '편견은 누워서 침뱉기이다'는 메시지와 함께 모든 감정적인 평가와 단편적인 사고는 자신과 국민들에게 갈등과 대립만을 가져오고 궁극적으로 자신과 국가 전체에 손실을 가져 오게 할 것이다.

장학로·노수석 사건 언론 보도 진단



권력쫓는 해바라기 언론 모습 고질적 편파보도 벗어나야 할 때

이회창·박찬종 뜻 올리고 순탄한 향배를 하던 집권당은 거대한 두개의 풍랑을 만났다.

대표적으로 청와대 제1부속실장 장학로씨의 부정축재사건과 '대선자금공개와 교육재정확보'를 외치던 한 학생의 사망 등이 그것이다. 이 두가지 사건은 언론을 통해 전국민에게 보도 되었으나 이 두 사건이 객관적으로 진실을 보도한 것은 아니었다' 여당의 향배를 재빨리 추스리게 한데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축소·왜곡 보도인 것이다. 이는 아직까지 우리의 언론이 홀로 서지 못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예이다.

우선 장학로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부정축재 사건과 관련한 보도는(이하 선거거부도 감시연대회의자료) SBS의 경우 스포츠전문채널에 이어서 보도되어 상대적으로 축소·왜곡 보도된 반면 '청와대추진부정'에 대한 어떠한 의문도 제기되지 않은채 검찰의 수사발표와 대통령의 사과문만 보도됨으로 일관되었다.

결국 이번 부정축재사건이 장학로 개인 의 문제로 축소되고, 대통령의 임정수사 지시로 김경권의 정령과는 무관한듯한 인상을 주었다.

지난 29일 시위도중 사망한 연세대 노수석군과 관련한 보도에서 노군이 대선 자금 공개와 교육재정확보를 요구하는 시위도중 사망했다는 과정과 원인은 무시한 채 부검결과에 대한 부검의사의 발표를 위주로 보도해 노군을 죽음으로 몰고간 대선자금 공개와 대학가 등록금 부담인상에 대한 분석기사는 없었다.

결과적으로 아직 밝혀지지 않은 김영삼 대통령의 대선자금공개와 대선 공약인 교육재정 GNP 5%확보에 대한 부분은 세인의 관심에서 멀어졌고, 모든 비난의 화살은 부당하게 등록금을 인상한 학교에 일축됐다.

이로써 김대통령은 자신의 최측근 비리 사건이 일어났을때도 정치 자신의 도덕성 보도에 집중했으며 자신이 아끼던 측근에

대해 '확실히 수사하라'고 촉구해 그의 '부정부패척결'의지를 더욱 강하게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비자금 문제로 자신에게 대선자금 의혹이 일자 전·노 전대통령을 구속시켜 관심을 돌렸던 부분이나, 부당한 등록금 인상을 방지해 한 목숨을 앗아간 죄역시 언론의 축소·왜곡 보도로 비난을 면했다.

이번의 두사건의 공통점은 한쪽에 치우쳐 축소·왜곡되었다는 점과 그 이유가 권력 과 강자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 언론이 등장한후 그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70년대에는 박정권의 '유신체제'이후 영구집권을 위해 언론인 탄압을 받았으며, 80년대에는 '연통폐쇄'의 고통을 겪었다. 한마디로 한국의 언론사는 지배자의 탄압과 그 탄압에 저항하는 투쟁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양극기를 거치며 언론은 조금씩 정립되었다.

문민시대에 접어들면서 획기적인 개혁이 있었다. 문민정부 취임 초기부터 부정 부패 청산에 나섰고, 얼마전부터 군사독재정권의 청산도 시작했다. 모든것이 민주주의로 나아가며 바뀌는데 문민정부가 들어선지 5년이 되어가도록 언론만큼은 바뀌지않아 전혀 보이지 않는다. 과거 군사독재정부때와 마찬가지로 객관성을 잃은채 언론의 주체가 누구인지 인식도 못하고 정체가되어있는 것이다. 엄연히 권력 과 강자의 도구역할을 하면서도 마치 민 의를 대변하고 약자의 편을 드는양 행세 한다.

정보화 사회에서 우리는 대부분의 정보를 언론을 통해 얻는다. 결국엔 거울에는 실체가 그대로 비추어 지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할때 공정방송모드를 위해 과업중 인 MBC노조를 보며 객관적이지 않은 소수의 언론을 생각해본다. 대중을 기만한 죄를 무엇으로 갚을것인 지..... (최승일 기자)

동악로

못다 핀 꽃한송이



'사람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 평생 나가자면 뜨거운 열매, 풍지는 간대 없고 깃발만 나부껴~' 지난 4월 6일 노수석군의 장례식에 참석한 6천여명의 학생들이 부른 노래가 신선일대에 울려 퍼졌다.

거대한 노군의 초상화가 걸려있고, 초늘려서 시어버린 노군이 누워있는 관, 그 주위를 둘러싼 학생들, 바쁘게 뛰어나는 기자들.

그러나 연세대 백양로에 모인 학생들은 "수석이 죽음으로 불교 간 학교측과 정부는 속히 사과발표와 진상을 규명하라"며 "이러한 사과없는 수석이를 보낼 수 없다"고 외쳤다.

하지만, 아무런 답변없이 그저 책임을 회피하는 학교측과 정부의 모습에 학생들은 장례식을 무기한 연기하고 거리로 나섰다. 거리의 행렬은 앞뒤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리를 가득 메우고, 지나가던 시민들도 관심을 가진다.

학생들은 가두 시위중 노군이 죽어 가며 외치던 '대선자금 공개' '교육재정 확보'등을 외치고, '수석이를 살려내라'

등 노군의 죽음을 예 통해하며 구호를 부르짖으며 계속 거리를 지나갔다.

그러나 시위행렬은 남대문에서 발길을 멈췄다. 바로 노군을 죽음으로 몰아간 전경들이 길을 막고 서 있었다.

화염병도 각목도 없이 평화적인 시위를 하며 '노군의 죽음을 알리던 학생들'에 그들이 길을 막았다.

'길이 막혔다고 여기서 끝낼수는 없다'며 스크럼을 짜 '앞으로 앞으로' 전진. 그러나 어김없이 쓰아대는 최후방 때문에 흩어져버리는 학생들, 이내 또 다시 모여 구호를 외치며 앞으로 전진 하지만...

이런 모습에 시민들은 너날할 것 없이 최후방언기를 얹기위해 불을 피우며 '평화적으로 하든대 왜 최후방을 터트리는지. 이라도 또 한사람 죽으면 어떡하라고...' 하며 혀를 찬다.

전경들이 쓰아대는 최후방과 맞서기를 수십차례. 어느새 서울의 밤하늘은 최후방 최후방 연기로 뒤덮여 버린다.

(이태훈 기자)

멀티미디어의 뉴 프론티어

# 화상정보를 디지털로

찍는다

본다

편집한다

PC로 이미지출력, 편집·가공도 상상껏 자유롭게

- 디지털 입출력 단지 탑재
- PC 접속장치를 사용하면, 촬영화상을 PC에 디지털 전송가능
- 새롭게 편집한 이미지 정보를 다시 OV-10으로 되돌려 전송할 수도 있음
- 플로피 디스크로 정보의 대량 보존·관리가 가능

픽은 장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 고화질 TFT 액정화면 부착
- 4정면/9정면을 한번에 표시, 자동 재생, 부분 확대 표시 등 다채로운 표시기능
- 단 1.5V 건전지 4개로 경제적인 사용
- 건전지가 다 닳아도 보존한 화상은 사라지지 않으니까, 안심 찍!

TV에 연결해서 Presentation

- 비디오 출력장치 탑재, 비디오에 연결하면 그대로 화면녹화도 OK!

필름없이 찍고 반도체에 저장한다

- 초경량 190g(건전지별) 콤팩트 사이즈
- 96메가 픽을 수 있는 대용량 플래시 메모리
- 15cm까지 근접 매크로촬영(선명도 최상)
- 렌즈부 270° 회전
- 권소비비율: 850,000원(VAT 포함)

멀티미디어 시대의 휴대용 화상정보기기

## 현대 디지털 카메라 QV-10

■ 서울: 디지털영상부 엘렉스컴퓨터 TEL. 528-9201~4

■ 부산: 디지털영상부 엘렉스컴퓨터 TEL. 528-9201~4

■ 대구: 디지털영상부 엘렉스컴퓨터 TEL. 751-0304~5

■ 대전: 디지털영상부 엘렉스컴퓨터 TEL. 625-8722

■ 광주: 디지털영상부 엘렉스컴퓨터 TEL. 395-2005

■ 울산: 디지털영상부 엘렉스컴퓨터 TEL. 611-3381

현대전자 멀티미디어의 뉴 프론티어 YUNDAI

은 국민의 기대를 안고 출범했던 문민정부가 해를 거듭할 수록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취임 당시 '개혁'을 기조로 삼았던 김대통령은 3년이 지난 지금 '안정'을 주장하며 슬그머니 개혁과 사정의 칼날을 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그동안 시행해왔던 개혁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지적해 본다.

(편집자)

정치부문

김영삼정부가 출범한지 3년이 지났다. 92년 새로운 정권이 드러설때 국민들은 '문민'이라는 수식어에 많은 기대를 걸었다. 과거 군사정권의 허위와 억압, 편견을 마감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을 맞이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3년의 재임기간이 흐른 현 시점에서 문민정부는 국정을 올바르게 운영하여 왔는가?

이는 국민의 합리적인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를 펼쳐왔는지의 여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김영삼정권의 취임초기 당면과제는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

첫째, 개혁정책이다. 이는 '신보수주의적 개혁'으로 간주, 초기에는 신선한 충격을 가져다 줄것이라 여겨졌으나 지금의 국정운영은 삼한 중증에 시달리고 있다.

94년 3월 정치관계법이 개정된 이후 전세를 전격적으로 구축한 95년 12월까지 수구세력의 핵심인사에 대한 숙청이 대중이후어진 뒤 더 이상의 정치개혁은 이어지지 못했다.

그 대신 일관성없는 정책집행과 인물이, 정면들과 등의 '깜짝쇼'가 연출되었으며, 발표된 각종 정책에서는 그 어떤 비전도 찾아볼 수 없었다.

둘째, 과거 군사독재가 만들어낸 지역 갈등 해소를 통한 국민대통합이다. 이는 현정권 최대 해결과제 중의 하나였으나 인신의 미비와 자파세력의 강화로 지역갈거주의적 형태가 만연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수구세력의 재기와 지역주의적 대립구도의 재등장을 허용했다. 또 몇몇 지역안배를 무시한 인사기용과 경관출신의 핵심요직 발령등 비정상적인 인사까지도 서슴치 않았으며, 국정집권자로서 야당을 동등한 자격과 수권능력을 갖춘 경쟁자로 인식하기보다는 괴물시야 할 '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타협이나 협조 요청을 스스로 거부한채 국민대통합이라는 시대적·국민적 기대에 실망감만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셋째, YS 3년정기의 비판자들이 내세우는 핵심적 사안인 '철학과 원칙의 부재'이다. 이것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정권의 국정운영능력의 허술함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일관성 없는 정책집행을 지적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그러나 과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대통령제인의 자질이 편견과 중의 사회분위기와 왜곡된 정치집사의 정상화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또한 3권분립의 미명하에 국회의 자율적 권력행사나 담당 부처의 입안을 도외시 행세 사안에 관계없이 직접적 권한을 행사하는 문제를 드러내 보이기도 했다.

김영삼정부 3년을 진단한다

정치 일관성 없는 개혁·이중잣대 역사바로세우기  
경제 중소기업도산 유도하는 재벌 중심 성장 정책  
권위주의 잔재 벗어나 지속적 경제성장 유도해야



그림=한겨레 신문



그림=한겨레 21

넷째, 문민정부가 내세우는 최대과제인 '역사 바로 세우기'이다. 이는 김대통령이 자신의 과거오류를 씻기위한 자구책이라 확언받기도 한다.

김대통령은 "나 자신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로 그 의지를 확고히 하고 두 전직대통령을 법정에 세웠지만 이것이 역사의 요청에 따른것인지 과거행위에 대한 면과를 위한것인지 의심스럽다.

현 정권이 과거 청산과 역사바로세우기에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국민의 인간다운 삶 보존과 참의성, 활력이 보장되는 사회를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것이다. 그것은 바로 불합리하고 반사회적 개혁을 거부한채 버리고 있는 사회구조를 먼저 정정해야 하는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S는 구시대적 정치행태를 버

리지 못한채 사회보호법, 국가보안법, 노동관계법, 언론관계법등 군사독재의 낡은 폭력적 관계법을 존속시키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김영삼 3년 재임기간은 앞서 밝힌 '철학과 원칙없는 정치'를 운영해 옴으로써 국민적 여망이나 '문민'에 대한 기대를 분열과 갈등으로 보답했다.

이제 3년이 지났고 남은 재임기간은 그다지 길지 않다. 지금이라도 국정전반에 철학과 원칙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합리적인 사회에 합리적인 정치가 구현되는 지름길이다.

경제부문

김영삼정부는 1960년대 신경제정책의 개발독재 이후 고착화된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민주화보다 국

민회생-재벌중심의 성장정책을 단행하고 있다.

김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시행된 금융실명제는 5·6공세력과 일부 재벌도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 개혁지향성이 가장 강했던 시기로 부각된다.

우선 부패와 비리행위를 받은 정치인과 공직자의 재산공개와 속칭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물론 그 대상은 구지배집단의 핵심인사들이 주를 이루었으나 일부 재벌과 공직자도 포함된다.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정치관계법이 개정되면서 김영삼의 개혁이 지향하는 바가 분명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선별수사, 제도개선 무시, 과거지향적 개혁 등 초기개혁의 문제점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지자 재벌과 수구세력은 기득권 상실의 우려로 개혁저지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이들과의 타협책을 모색하여 재벌에 대한 규제완화와 민영화 등의 신보수주의적 정책 및 시장개방과 재벌의 해외진출을 용이하게 하기위한 정책추진이 더욱 가속화 됐다. 반면, 노동조직에 대해서는 개혁적 노동정책을 원점으로 돌려놓았다. 또한 수구세력에 대해서는 선별적 포용과 배제의 정책을 추구했다.

정치관계법이 개정된 이후 대규모의 인사가 단행되고, 이와함께 재벌의 이윤추구활동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주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여기에는 3당 합당 이전의 4당 대립구도의 재등장 역시 주요 변수로 작동했으며 재벌에 대한 각종의 지원정책을 '세계화'이데올로기로 정당화시키면서 더욱 본격화 되었다.

이후 김영삼은 '역사바로세우기'와 맞물려 비자금 사건과 연루된 재벌총수들을 구속하기 시작했으나 이 시기의 개혁 대상에 재벌을 포함시켜 오히려 구속된 총수들을 위로해 주는등 93년말 이후 재벌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태도를 재확인했음을 보인다.

이러한 김영삼의 한계원인으로는 Y-S와 민주주의의 민주주의에 대한 불철저한 인식 및 집권 당시의 취약한 조직적 기반을 들 수 있다. 또한 정권의 외부에서 민중민주세력이 약화되고, 대중의 정서가 실질적인 개혁과 괴리되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최근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연초부터 성장과 물가, 무역수지에서 모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

그 실례로 지난해 12월 산업생산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6.9%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는 지난 94년 2월의 1.8%이후 가장 낮은 것이며 95년 연간증가가 11.7%보다 부진한 것으로 하강곡면에 접어든 경기가 너무 빨리 식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으며 이와 함께 1월중 무역수지 적자는 20억달러를 넘을 전망이다.

한편, 김대통령은 새해 국정연설에서 안정성장, 물가안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강화를 크게 세가지로 제시했다. 내용을 보면 앞으로 개혁보다는 안정에, 안정중에서도 지속적 성장에 중점을 두겠다는 요컨대 무엇보다 지속적인 안정성장을 경제분야 개혁의 화두로 던지고 이를 위해 설비투자과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그러나 정책수립이 곧바로 정책집행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김정권은 당내외의 정치적 실권을 잡기 위해 중산층으로부터의 지지를 확보해야 하고, 이로부터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서는 권위주의적 통치가 남긴 유산을 청산하고 지속적 재벌과 수구세력을 기득권 상실의 우려로 개혁저지를 비판하고

뜻깊은말

잘사는 방법



한만수

세계 남성들의 정치 수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덴마크의 한 의학자는 21개국의 1만5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50년 사이에 정치가 50%가 줄었다고 보고해 충격을 주었다. 이런 추세 계속된다면 21세기 중반이면 남성들의 50%가 불임에 이르게 되리라고 그는 예상했다. 이쯤되면 생식불능으로 인류는 멸망할 위기에 놓여있다고 해도 후들갑이라고만 말하기 어렵다. 어쩌서 남성들은 '고자'가 되어가는가.

과학자들은 스트레스와 과도한 흡연 및 음주, 약물남용, 환경오염 등을 유력한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이유가 대부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라면 결국 스트레스와 환경오염 탓인 셈이다. 그럼 우리나라 남성들은 안녕하신가.

물론 그렇지 못하다. 연세대 남성의 학연연구소는 한국남성의 평균정자수는 70년 1억마리에서 최근 6천만~8천만마리 수준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세계 최고의 40대 사망률에 허덕이는 '경쟁공화국'의 남성들이 아닌가. '우리의 1년은 세계의 10년'으로 압축되는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빨리빨리'에만 익숙해진 우리들 아닌가. '빨리만 지으면 빨리 무너져도 상관없다'는 듯 공기단축 철야공사는 상식이 됐고, 외우아파트와 삼풍백화점 붕괴를 불러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나의 경쟁상대는'어찌구 하는 대대적인 광고까지 해가며 전국민을 죽음의 경쟁으로 내몰아만다.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가.

온갖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경쟁에 뛰어드는 것은 한마디로 '죽고 살자'고 하는 것이다. '여유같은 내 마누라 토끼같은 내 새끼'라며 살아가는 몸부림이다. 그런데 그 중독보존을 위한 투쟁이 아이러니컬하게도 미래의 자손(정자)들을 죽이고 있다. 정자 감소 뿐이 아니다. 스트레스는 암 등 모든 병의 원인.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잘 살아보세'의 몸부림이 웃기를 죽이고 있다. 어쩌야 할 수 있을 것인가.

잘사는 방법을 익히는 수 밖에 없다. 부유하게 살기와 잘 살기를 동일시했던 것은 늘 절대적인 생존위기에 몰린채 살았던 우리 조상들의 슬픈 혼동이었지만 이제 우리도 굶어죽을 위기는 벗어난 셈이 아닌가. 경제적 풍요만을 추구하는 욕심이 경쟁과 스트레스, 자연침탈적 세계관과 환경파괴를 불러왔다. 잘 살려는 노력은 자연친화적 세계관과 공동체주의의 회복이다.

문학평론가 · 순천대 국어교육과교수

Advertisement for YBM 시사영어사 TOEIC and TOEFL courses. Includes text like 'YBM 시사영어사, TOEIC 실제문제 독점계약!', 'Number One TOEIC', and 'TOEFL TEST'.

잠깐

# 인터뷰

## 정태춘씨를 만나



“저기 떠나가는 배, 거친 바다 외로이...” 지난 3일 경주총 학·총여 출판식 문화공연에 초대되어 온 민중가수 정태춘씨를 만나 보았다. 오랜기간 음반사전심의 철퇴를 위한 투쟁의 부분적 성과를 거두고 멀리 경주까지 달려와 진정한 대학문화와, 젊은 대학생이 가져야 할 의식에 대해 공연중 많은 얘기를 들려주었으며 인터뷰 석상에서 또한 연신 담배연기를 내뿜으며 진지하게 얘기를 나눴다.

▲요즘의 대학문화에 대해.  
= 지금의 대학문화는 지배문화에 속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전의 대학문화는 지배질서에 거부할 수 있고 제도권에 대항적인 자세를 가진 저항문화였지만, 현재는 지배세력이 존재되어 지배문화의 거부감없이 수용하고 소비적으로 전락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의 대학이 취해야 할 자세는.

= 예전과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젊은 세대, 지식인의 집단으로 비판 대안적인 자세를 가지고 지배질서의 반역의 음모,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 해결하는 변화의 주역이라는 그의 식민은 잃지 말고, 이상과 진보정신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음반 사전심의 철퇴를 위한 외로운 투쟁에 대해.  
= 재판에서는 승리했다. 지난 11월, 국회 개정안이 통과돼 6월이면 공식음반이 나올 예정이다. 그러나 국보법 등에 대한 투쟁은 끝나지 않아 완전히 종결된 것이 아니다. 한 번 걸러져 나오는 가사, 음악에 대해서 이젠 대중들이 거부할 것이다. (허민희 기자)

### 기획 시리즈(2)- 양일 저항기 문학의 성격

## 문학적 근대화,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력 키우기

### 신경향파·민족주의 항일저항문학 출발

한국근대문학사의 기본 성격을 말한다면 그것은 대타적인 근대의 인식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 말은 '근대'라는 현상을 바라본 식민지시대 문학창작 주체의 한 특징을 그대로 표현하는 말로써 흔히 논의가 되고 있는 '이식문학사론'이나 '전통단절론'의 원인이기도 하다. 즉 한국 식민지시대 근대문학의 인식주체는 '근대'를 자연발생적인 것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제국주의 팽창과 함께 나타난 '서서동점'의 한 현상으로 받아들였다. 결국 근대라는 것을 제국주의 힘의 근원으로, 자체적인 것이 아닌 대타적인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근대화' 내지 '근대화'라는 개념이 발생하게 된다. 문학적 근대화란 곧 제국주의에 대한 대타적 저항의 일부이며 그 저항력을 키우는 행위가 된 것이다.

일본의 침략시기에 나타난 '준비론 사상'과 문학적 '계몽주의'는 이 점에서 근대화를 주목표로 하며 식민지 조선문학의 독특한 근대체함을 그대로 반영한다. '저항'을 위한 '힘'의 축적이란 논리는 '근대화'를 힘의 근원으로 인식한 결과로서 '따라잡기'로서의 '근대화' 또는 '근대지상주의' 문학의 실질적인 추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근대문학은 본질적인 근대 안에 근대의 두 가지 모순을 포함하고 있다. 그것은 이미 앞선 글에서 말한 '계급'과 '민족'의 모순이다. 자본주의 형성과 함께 확립된 계급의식이 근대문학의 형성

과 함께 새로운 근대적 주체의 자의식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제국주의에 대한 대타적 인식 속에서 형성된 민족 공동체에 대한 '대타적 자각'은 한국문학사가 제 3세계 저항적 민족주의의 성격을 공유하게끔 하는 원인이었다. 식민지시대 혹은 '항일저항기 문학'의 특징은 이 점에서 분명해지는데 그것은 '항일저항'의 민족문화와 '자본주의'의 문화를 비판하는 계급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심지어 이광수의 문학작품까지도 일정부분 공유하는 성격으로써 그 시대의 중심적인 인식태도였다.

그러나 항일저항기 문학에서 진정한 저항문학을 꼽는다면 '근대문학'이라는 개념 안에 이미 스며있는 '저항적' 요소를 단순히 확장해석하는 방법으로서 그 진위를 가려낼 수는 없을 것이다. 외세의 극복이라는 차원에서 나타난 개화사상이 연장된 근대화 의지는 그 내부에 대타적 저항의 요소를 약화시키는 성격이 감추어져 있다. 즉 민족과 계급에 대한 본질적인 인식을 저해하는 기만적인 논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이다. 이광수의 계몽주의 문학과 준비론사상, 근대지상주의의 문학이 지닌 저항문학으로서의 한계는 이 점에서 분명해진다. 또한 김동진과 초기 낭만파 시인들의 대부분도 역사외에 대한 자각이 미약하여 저항문학의 모습으로 보기에 부족한 점이 많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항일저항기문학의 출발점은 1920년

대 중반무렵에 나타난 신경향파문학의 등장, 이상화 등의 민족주의 문학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상화, 홍사옹 등 일부 낭만파 시인은 초기의 낭만주의 성향에서 벗어나 민족 현실에 대한 자각을 갖게 됨으로써 자연발생적인 신경향파 문학과 민족주의 문학을 저항하기 시작한다.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는 초기 낭만파의 감상성을 벗어나 민족의 현실에 대한 자각을 시작으로 형상화 내는 대성공한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한용운의 '님의 침묵'은 식민지 현실의 상황을 '남이 부재한 현실'로 비유함으로써 종교적인 구도자세를 민족의 시련 극복 자세로 변용시켰다. 이 밖에 최서해의 '탈출기' '홍명' 등 다수의 소설과 낭만적 저항성을 보여준 나도향의 '물레방아' '현진건의 '술권하는 사회' '민재' '운수좋은 날' 등이 1920년대 전반기의 저항문학으로 꼽을 만하다. 물론 그 저항의 성격은 민족과 상대적인 계급의 차별에 관한 것이며 가난과 빈곤을 형상화하는 방법이 중심이었다. 즉 근대의 모순이 중립된 현실을 가난이라는 것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그 원인이 민족적, 계급적인 모순에서 연유한다는 것을 조금씩 암시하기 시작한 것이 이 시기이다.

1925년 이후 카프가 결성됨으로써 표면적으로는 식민지 조선문학계는 민족주의 문학 진영과 계급주의 문학 진영으로 양분되지만 이 두

진영의 대립은 서로 상반된 역사의식을 지닌 집단이기보다는 근대문학의 두 가지 모순 중에서 어느 것을 선차적인 것으로 파악하는나 하는 판단과 선택의 문제에서 서로 의견이 달랐을 뿐이라고 할 수 있다. 한설아의 '과도기', 조명희의 '낙동강' 이기영의 '민촌' '농부 정도령' 등은 계급의 문제를 중심으로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작품들이다. 이 시기는 카프의 세력이 주도되어 식민지 저항문학을 사회구조와 민족모순을 일면제국주의의 문제로 확장한 시기에 해당된다. 1935년을 전후한 시기에는 심훈, 이육사, 이응우, 윤동주 등의 시와 채만식 '탁류', '열산성' '삼대', 김남천 '대하' 등의 장편 가족사 소설과 이기영 '고향' 등의 장편소설이 민족현실의 모순과 그 극복의 의지, 일제에 대한 저항 등을 형상화하였다. 또 아이러니 기법을 주로 사용한 채만식의 '지옥' '데미메이드' 인생'도 이 시기 사회문제를 비판하고 고발함으로써 그 문제의 원인이 식민지 현실에 대한 저항감을 간접적으로 형상화해 냈다. 결국 1945년 해방 이전까지 식민지 저항문학의 대략적인 개요를 요약하면 사회적 비판을 주요한 방법으로 삼아서 민족 문제, 반제반봉건의 과제를 형상화하는 것이 중심경향이었다고 할 수 있었다.

김춘식 (대학원 박사과정·문학평론가)

### 달 하나 전 광역

### 담배에 절 배울 때



4월 5일 식목일. 몇몇 교수들과 함께 공대앞 회관에 갈나무 한그루를 심었다. 그리고 공대앞 농구장 부근의 담배공초를 주웠다. 예상했지만 그렇게까지 공초가 많을 줄이야. 풀포기 하나하나, 돌멩이 하나하나 공초가 숨겨져 있고, 그냥 길바닥에 무참히 버려져 있었다.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10여명이 각자 하나씩 들고 나간 비닐봉지를 가득 채워왔다. 다시 한번 쓰레기문제를 곰곰히 생각해 보았다. 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걸까. 무엇이 잘못 되었을까.

함참 공초를 줌과 있는데, 농구장에서 농구하던 한 학생이 공초를 길에 버렸다. 내가 공초를 주우려고 하자 그는 승복치 않는 태도로 자기가 버린 것만 겨우 줌은 것이었다. 바로 그 옆에 떨어져있는 것도 주우려고 하자, 남이 버린 걸 더러워서 어떻게 치우냐며 반발했다. 나도 화가 났다. "더러움 줄 알면서 왜 버리냐" "버릴 곳이 없지 않느냐" "버릴 곳이 있는데서 피우야 하지 않느냐" ".....". 이런 실경을 하듯이 때문에 더욱 평소부터 생각해 왔던 담배에티켓에 대해 꼭 말해야겠다.

공초를 함부로 버리는 것은, 대부분 공초를 버릴 데가 담장 근처에 없기때문이다. 그래서 휴지통이나 공영등에 많이 설치하려는 노력을 했던 것일텐데, 휴지통이 아무리 많다고 담배피우고 싶은 장소만큼 많을수는 없다. 결국 어딘가 길바닥에 공초는 버려져 있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휴지통을 많이 설치함으로써 공초를 줄이려는 방법은 별 효과가 없음을 판명된 것이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답은 담배를 피우려면 처음부터 휴지통이나 재떨이가 있는 곳에서 피우면 된다. 아무데서나 피우려는 안되는 것이다. 그것은 실례를 아무데서나 하면 안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과연 공초를 함부로 버리는 것과 재떨이를 아무데서나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아마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의식을 어떻게 심어줘야 하나. 우리는 평소 얼마나 이 문제를 생각하고 있으며 노력하고 있는 것일까? 별로 생각지도 않고 의식전환의 노력도 하고 있지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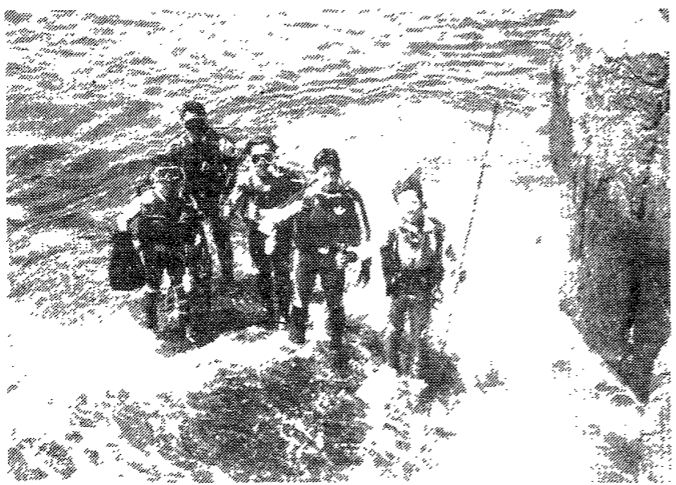
수년간 일본의 한 회사를 견고 있었을 때의 일이다. 그곳 상인들이 지나는 모든 행인에게 휴대용 재떨이를 나눠 주고 있었다. 속은 불편했지만 동전지갑처럼 양쪽 끝을 누르면 열리고 놓으면 닫히게 된 것이다. 담배 한 갑 정도의 공초는 들어갈 것으로 보였다. 그 당시 나는 담배를 피우던 시절이었고 나 역시 피우고 싶을 때는 아무데서나 피웠으나, 이런 경험을 통해 담배피우는 때와 장소를 가리는 문제를 좀더 자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유심히 보니, 그들이 교내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다니는 모습을 거의 볼 수 없었다. 의식적으로 그들에게 물어보니 담배피우려는 아주 급물이라는 것이었다. 그렇다. 적어도 담배를 피우려고 걸어다니는 것만큼은 삼가 해야 된다는 교양교육을 새로 시작하자, 상대가 대학생이지만 어련한데 버릇 가르치듯 간절하게 타이르자, 이 문제를 모두 다 심각하게 인식하자.

정태섭 사범대 역사교육과 교수

### 동아리 문화워기

### 서울캠 체교분과

### 몸과 마음이 튼튼한 체교분과를 찾아



활발한 활동속에 건강한 웃음을 담백 담백 체교분과 동아리. 그들에게서 '몸도 건강 마음도 건강'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다.

체교분과 동아리는 13개, 토로축구회, 아마추어 농구부, 아마추어 야구부, D.U.T.C(테니스)등 동근 공에 매력을 느낀 이들, 검도부, 경매, 선무부등 바른 무예정신을 수양하는 이들, 산, 등산, 바다, 하늘을 막론하고 인간이 갈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다는 의지로 등산 산악부, 등산탐험연구회, 수중탐험연구회, 비파소리와 비독으로 삼을 공부하는 기우회, 배낭 하나 메고 훌쩍 떠나는 친구들이 모인 유스호스텔 등이 체교분과를 이루고 있다.

각자 침을 튀기며 자기 동아리 자랑을 한다. 자신을 공격하게 쟁겨주는 선배자랑, 낯선 자는 버릇이 없어졌다라는 자랑, 호신술을 배워 든든하다는 자랑 등 가지가지다.

학부제의 실시로 새내기들이 마땅히 정착할 곳이 없어 동아리가 활성화 될거란 예상과 달리 체교분과 동아리의 새내기 회원수는 예년과 비슷하다.

이직 학부제가 자리매김을 못해 과제제 운영이 지속되는 상황이며 학기초라 새내기들이 환영파리, 개강파리 등에 정신이 없다.

체교분과 동아리의 몇몇 새내기들은 "새내기 여학우들이 없어요. 오라고 광고 좀 내주세요"라며 장난스레 웃는다.

선배들은 품팔은 새내기들이 마땅히 정착할 곳이 없으니 너무 안타깝다고 말한다.

운동을 하면 당연히 땀이 나는 법인데 샤워실이 없고, 인원에 비해 공간이 적은 동아리들도 많다. D.U.T.C의 경우 테니스코트와 샤워실이 남아 보수가 필요한 상태이며 아마추어 농구부는 아예 본교 체육

관을 이용하지 못해 다른 학교 체육관을 이용하고 있다. 뒤편 체교분과인들의 정열적인 활동에 과연 학교시설지원은 걸리라고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박민진 기자)

### 티코와 함께하는 건강한 대학문화 캠페인 ① - 고려대 민화동아리(그림마당)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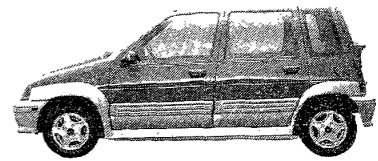
지성과 자기소신이 살아있는 건강한 대학문화를 위해 - 경치보급에 앞장서는 티코가 함께합니다

## “관한 ‘척’ 하지 맙시다.”



허세를 벗으면 편안합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한 관한 척, 관한 허세 - 모두 벗어버리고 자신있게 삽시다!

허세 없는 차 - 티코



TICO 나는 나, 티코를 탄다.



21C혁명, 게임산업 진단  
④ 구조적 이해

고부가가치·아이디어 산업으로  
무한적 확장성 지녀

거대한 유통시장으로 떠오른 게임산업, 그것의 '구조적 이해' 및 '현실과 전망'을 2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누구나 한번쯤은 어린시절 20평 남짓한 캄캄한 게임센터에서 '캘러그'라는 전자파리페들에 맞서 우주를 지키는 게임에 50원을 투자하며 즐거워하던 기억들이 있을 것이다.

7천억 황금알을 낳는 시장' 그간 우리나라의 게임산업은 기이적인 구조속에서 음성적으로 성장. 현재 7천억의 매출시장을 형성하게 되었다. '게임은 어린이 전용물' 게임센터는 불량청소년의 온상'등 기성세대의 부정적인 편견과 독단의 발달한 현실속에서도 이만큼 성장해온 이 산업의 배경은 무엇인가. 다뤄본 편견을 깨뜨려 볼 자리가 되었음을 한다.

7천억 게임시장은 여러분야로 나

뉘다.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게임센터를 중심으로한 어뮤즈먼트게임산업, 가정용TV나 컴퓨터에 쉽게 접속하여 소프트웨어를 교체함으로써 다양한 게임을 즐기는 가정용 컨슈머 게임기산업, 게임캐릭터를 모델로 영화나 TV만화제작, 팬시상품제작등 캐릭터산업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제 게임산업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성장근거와 가능성을 알아보자.

첫째로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기본 게임개발비용을 갖추고 그에 따른 전문인력이 투입되면 하나의 작품을 기획에서 발표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즉 어느정도선의 개발비만 투입돼 있다면 제품생산의 관건은 창조적인 것이다. 둘째로 아이디어 산업임을 들수있다. '테트리스'란 불려왔던 게임은 누구나 한번은 즐겨

보았을 것이다. 이게임은 구소련의 한 과학자가 네개의 벽돌을 여러 형태로 조합해 어떻게 쌓는것이 가장 빈공간 없이 안전하게 쌓는것이가 이물을 하나를 아이디어로 발전시켜 전세계에 비호트를 기록했다. 셋째로 제3의 과학 정보통신의 근간이 되는 컨택트 산업의 기초이다. 오늘날 한 게임을 담아서 전달하는 매체로서 콤팩트디스크에서 CD-ROM이 대중화단계이다. 최근 가정용 게임산업에 뛰어난 세계유수의 회사 소니-도시바등은 CD의 몇배용량의 차세대 기록매체로 DVD(디지털 비디오 디스크)의 규격화에 통일, 앞으로의 게임을 DVD에 담아 전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게임산업은 컨택트 산업의 발전과 함께해는 것이다. 넷째로 관련산업의 무한적 확장성을 꼽을 수 있다. 단적인 예로 닌텐도의 마스코트 '마

리오'와 세가사의 '소닉'은 한번쯤은 눈에 익은 이름이다. 각사의 대표적 인 게임에서 탄생한 이들은 전세계를 누비고 다니며 회사브랜드의 이미지를 생활에 밀접화하는 동시에 작은 열쇠고리에서부터 TV광고까지 일상생활에 동화되어 있다.

게임산업의 목적은 종합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의 지향이다. 게임은 단순히 보기와 보여주기식의 2분할적 접촉방식에서 찾는 즐거움에 거부한다. 한 작품마다 여러 장르를 통해 전체배경, 인물설정, 스토리등의 틀을 짜놓고 그 틀안에 플레이어가 뛰어들어 전체 게임구조에 따라 자신의 의지·취향대로 흐름을 전개시켜 간다. 게임은 이 일체적인 다접촉방식을 본질이라 말하는 것이다. 비로소 인간은 가상공간에 눈과 귀에 이어 손과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다. (문화부)



-영화편-  
영상매체비평

정재형  
(연경과 교수·영화평론가)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출세작으로 알려진 '저수지의 개들'(92)은 칸느 영화제에 출품하면서 평론가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여섯명의 갱들이 거사를 꾸미고 실행에 옮기지만 실패로 돌아간다. 한명은 죽고 다른 한명은 치명상을 당한다. 경찰의 습격을 받고 그들의 아지트(창고)에 들어온 갱들은 누가 밀고 했는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마침내 그들 가운데의 밀고자가 밝혀지고 서로 다투다가 총격전을 통해 모두 죽고만드는 이야기이다. 마지막의 황당함 연당은 코믹한 효과까지 갖고 있다. 서로에게 겨는 총에 의해 공멸하고 마는 이 영화는 그 내용 보다는 신선한 영화적 구성 방식에 의해 주목을 받았다.

영화장르적으로 이 영화는 갱을 소재로 한 경쟁영화에다가 범죄의 동기와 음모, 배신들의 원인을 추리해 들어가는 전형적인 '필름 노와르'의 장르를 복합시켰다. 그러한 장르적 전통도 현대적으로 변형된 '홍콩 액션 갱스터 노와르' 장르를 또다시 복합시킨다. 따라서 이 영화에는 오우삼이나 왕가위식의 홍콩적 주제인 의리와 배신의 동양적 멜로드라마 코드를 크게 강화시키고 있다. 이처럼 이 영화의 구성은 현대 영화의 한 공식처럼 되어버린 '복합장르' 혹은 '잡종장르'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잘 드러내고 있다.

영화의 구성은 현재와 과거를 넘나들면서 복잡하게 전개되는데 여

전형적인 타란티노 영화  
여섯명의 갱... 말 그대로 '개들'



이 영화는 서로의 배신·의심으로 파멸하고가는 갱의 모습을 그렸다

섯명의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면서 사건의 전모는 뚜렷이 드러난다. 이러한 에피소드식 전개는 종래 헐리우드영화에서 잘 구사하지 않던 관습이다. 타란티노 감독의 신선함과 재치가 돋보이는 부분이 바로 그것이다. 영화는 여섯명의 인물들을 차례차례 한 사람씩 소개하는데 그러한 추리형식은 탐정노와르 영화의 전통적 기법을 슬쩍 변형시킨 것이다. 그러나 그 효과는 마치 새로운 실험영화를 보는듯이 신선하다.

그러나 그의 영화는 근본적으로 사회평화적 입장을 견지한다. 밝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 그 사회가 갖추고 있는 어두운 부분을 일단 드러내야 한다는 논리인 것이다. 영화는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가? 타란티노의 표현대로라면 더러운 쓰레기 하직장속에 덮여있는 법세나 는 대중들에게 그래도 희망이 남아 있다는 것을 제시하는 일인 것이다.

전작인 '저수지의 개들'에서 이미 확립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영화의 선구적 가치는 더욱 빛난다 하겠다.

타란티노는 미국 대중문화 혹은 저급 하층민 문화로 치부되던 종래의 가치개념을 전복시키는 주제를 보여준다. 그의 영화에는 항상 '더럽다'라는 현대적 상황이 전개된다. 사회의 더럽고 추악한 일면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타란티노 영화에는 자주 등장한다.

그러나 그의 영화는 근본적으로 사회평화적 입장을 견지한다. 밝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 그 사회가 갖추고 있는 어두운 부분을 일단 드러내야 한다는 논리인 것이다. 영화는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가? 타란티노의 표현대로라면 더러운 쓰레기 하직장속에 덮여있는 법세나 는 대중들에게 그래도 희망이 남아 있다는 것을 제시하는 일인 것이다.

97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추가계획

강성수의 이야기

뛰어!! 뛰어!! 죽기 싫을 뛰어!!

매체의 발달과 함께 자신을 선전하는 광고의 중요성이 높음 요즘, 4.11 총선을 겨냥한 각 정당들의 광고전이 치열하다.

신한국당은 이미 1월부터 60여 차례에 걸쳐 6종류의 시리즈를 각 일간지에 실었다. 처음에는 신한국당의 장점과 특성을 선전하는 포지티브(긍정적)공고를 실었으나 선거의 막바지에 이르자 야당을 비방하는 네거티브(부정적)광고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국민회의의 김대중 총재의 저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중에서 '정계은퇴 결정이... 국민들에게 나의 마지막 정치적 봉사', '단 백원도 못갠듯 못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등의 김총재의 말을 들어 자신이 한 약속도 지키지 못한 거짓말쟁이 양치기 소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고 비꼬는 '이슈우회편', 김종필 자민련 총재가 '62년 교도통신 인터뷰에서

◇ 일간지 선거광고 평가  
각당 모두 상대방 흠잡기 혈안

'차라리 독도를 폭파시켜 버릴까?'라고 한 발언과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가 '96년 마이니치신문 인터뷰'에서 '최근 독도문제와 관련 한국민의 감정이 악화된 것은 발작적 난리법석이다'라고 한 발언을 인용해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겠냐는 '나라 사랑'등을 시작으로 상대 정당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신한국당만의 문제가 아니다. 새정치국민회의는 '선거에 쓸만큼은 주었습시다' 라는 노태우 전대통령의 아들 노재현 씨의 말을 인용, 김영삼 대통령의 92년선거자금 집중추궁하고 나섰고

없습니다. 진짜 보수정당은 자민련 뿐입니다'라고 말하며 신한국당과 국민회의를 비판하는 등의 광고로 상대 정당에 흠집을 내기에 바쁘다. 위의 광고를 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은 비슷하다. 예전보다 더욱 세련되고 감각적이며 단발성이 아닌 시리즈를 엮어 변화에 민감한 신세대들에게 강한 어필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각 정당을 서로 불고 활구는 것으로만 광고를 일관한다면 그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는 것이 그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선거의 생명은 홍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홍보의 필요성이다. 이제는 유권자들에게 상대를 깎아내리는 비방이 아닌 자신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건장한 홍보를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김상민 기자)

매아리

오이디푸스의 교훈

음을 입았는가. 물론 그렇지 않다. 그러나, 그 상황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이 저지른 일이 순리를 거역한 일임을 알았을 때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장남이 되어 테베를 떠난다. ▲ 경주 캠퍼스의 학내에는 출범식을 시작으로 각 총학 및 단체, 자치구가 분주하게 움직인다. 그러나, 매서운 불바람만큼이나 학우들의 시선도 차갑다. 어디서부터가 잘못된 것인가. 방중 누구든지 않게 분주하게 움직였던 여러 집행부들의 움직임들, 등투를 위해 한달 가까이 시행했던 정거농성, 중앙운위에서 이것이 진정한 등투의 방향이며 정몽을 끝내는 시점에 서 등투는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다. 다른 방향으로의 전환이 최선의 길이며 이것이 옳다'고 말했다. 지금 우린 오이디푸스가 한 것처럼 자신의 과오에 대한 인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고민과 함께 다시 시작해야 한다. 오이디푸스처럼 자신의 자를 떠나기엔 아직 96년의 끝은 멀었고, 해야 할 일이 많기에...

(현)

正道경영. 초우량 LG

최고의 고객만족

화학강국이 세계강국  
모든 산업의 기초는 화학-화학산업이 발달해야 나라가 강해집니다

반도체산업, 전자산업, 자동차산업, 의약품...  
인간의 삶을 편하고 윤택하게 하는  
모든 첨단산업도 알고보면 그 핵심기술은 화학입니다.

모든 산업의 기초는 화학-  
LG화학은 한국 최대, 세계 굴지의 종합화학회사로  
첨단 미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화학산업이 발달해야 나라가 강해집니다.

화학강국  
고분자, 정밀화학, 바이오, 정전자소재

자동차, 우주항공분야의 엔지니어링 프라스틱 등 최첨단 고기능 신소재 개발  
무공해 농약, 생활용품 첨가제, 석유화학 중간체 등 고부가가치의 신물질, 신기술 개발  
유전공학 핵심기술을 응용하여 인간성장호르몬, 제4세대 항생제 등 첨단의학 신물질개발  
고도의 기술융합 연구로 정보사회를 앞당기는 반도체 기초소재 등 개발

LG화학

LG/화학CU · LG화학 · LG석유화학 · LG MMA · LG오일스코링 · LG업라이프디스프 · LG실트론